



초대의 글

‘개발’에 관한 실천적 학문인 ‘개발학’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래된 주제부터 개발의 방법과 주체, 이념 지형도 바뀌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서구가 비서구 세계를 지배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작된 식민지 학문으로서 개발학은 식민주의와 냉전, 그리고 세계화와 최근의 복합적 위기의 시대를 겪으면서 주제와 대상, 방법이 보다 다층적이고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금번 국제개발협력학회는 바로 이러한 개발학의 변화 지점을 논의하고 한국에서 개발학이 어떻게 수용, 전개, 발전하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귀중한 시간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에 피식민지국, 최빈국, 분쟁국,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에서 개발과 발전 문제는 모든 학문분과에서 매우 뜨거운 연구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압축적 근대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개발학은 잠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듯하다가 ‘원조 공여국’이 되면서 다시 귀환했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국제개발학’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역사발전 궤적과 지식 권력의 변화과정을 잘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금번 동계학술행사는 한국에서 개발학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매우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금번 학술행사는 일본과 중국의 학자들을 초청하여 동북아에서 개발학의 현 수준을 논의하는 특별 세션을 비롯하여 개발학과 개발정책, 성과관리, 시민사회, 인도적 지원, 국제표준, 평가, 민관협력, 교육, 젠더, 전자정부, 농촌개발, 거버넌스, SDG 등 18개에 달하는 방대한 주제의 분과들로 구성하였습니다.

학회 회원 제위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학자, 전문가, 연구자, 활동가 및 정책결정자 여러분! 금번 국제개발협력학회에 오셔서 고견을 나누어 주시고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 안고 있는 현실과 과제, 미래 비전을 함께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늦가를 평안하시고 12월 11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개최되는 동계학술대회에서 뵈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학회장
손혁상